

해수부, 강원도 황태 수출업체와 해외시장 다변화방안 논의한다

-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체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체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체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한하여 '24년 2월 21일 오전 12시 (현지시간기준) 까지 수입허용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체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업체와의 소통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식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 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481)

